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수준과 흡연과의 관계

이홍직* · 김광선** · 김광희** · 남길우** · 민경원** · 이삼순** · 정찬희** · 박소연***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Smoking Behaviors

Hong-Jik Lee* · Kwang-Sun Kim** · Kwang-Hoi Kim** · Gil-Woo Nam** · Kyeong-Won Min** · Sam-Soon Lee** · Chan-Hee Jeong** · So-Youn Park***

요약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인터넷 중독 요인에 따른 흡연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둘째, 각 독립변인의 하위집단별 흡연 정도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인터넷 중독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 증상이 있는 청소년이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factors on smoking behavior among the Korean youth. The 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was used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were employed for this study. Gender, living with parents, economic status, school level, academic record,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well-being, level of stress, level of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smoking behavior. Findings may be used for developing promising strategies to cope with smoking behavior of adolescents in Korea.

키워드

Korean adolescents, smok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internet addiction
청소년, 흡연,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hongjiklee@kangnam.ac.kr)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spark831@gmail.com)

접수일자 : 2013. 04. 20

심사(수정)일자 : 2013. 05. 10

게재확정일자 : 2013. 05. 21

I. 서론

청소년기는 정신적이나 신체적 측면에서 공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개인의 향후 발달단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1-11].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일탈의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 일탈의 유형 중 흡연은 다른 일탈과 건강위험행태로 청소년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9].

이러한 청소년의 흡연 문제에 대응, 흡연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규명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흡연을 하게 되는 이유를 다양한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흡연을 비롯한 일탈행동 관련요인 중에는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 가족 요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요인, 학교생활요인 등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9],[12-16]. 그러나 최근 청소년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과 흡연과의 연관성을 논의한 연구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9]. 그러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인터넷 사용이 현격히 빈번하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폐해도 가장 위험한 연령층으로 청소년 집단이 제시되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는 이들의 인터넷 중독과 흡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1],[17-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의 주요 관련요인 중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인터넷 중독 요인과 흡연여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요인, 인터넷 중독 요인에 따른 흡연여부의 차이를 검

증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매해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자료 중 2009년도 제 5차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이 원시자료에는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흡연여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요인,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설문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국16개 시도 73,238명의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이나 학년의 편향성을 극복한 비교적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라는 점에서도 본 연구자료로 그 효용을 지닌다고 판단되었다[3]. 본 조사에 활용한 2009년도 자료는 전체 표본 중 75,066명이 응답하여 97.6%의 응답률을 보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등의 설문문항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별 측정도구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3.1 흡연 여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의 최근 30일간 흡연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질문을 통해 흡연여부를 측정하였다.

2.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등의 설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부모와의 동거는 동거여부로, 가계경제수준은 상, 중, 하로 학교유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3.3 건강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의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수준, 우울여부 등을 건강요인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수준은 상, 중, 하로, 우울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의 유무로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2.3.4. 인터넷 중독여부

원시 자료에서 인터넷 중독여부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K 척도로 일상생활장애요인, 현실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9]. 본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계수는 0.92로 나타났다는데,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사용기준에 따라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중독으로 파악하였다.

표 1. 변수의 소개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구분	변인	변수	설명
종속변인	흡연여부		0 = 아니오 1 = 예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	성별	0 = 여 1 = 남
독립변인	부모와의 동거여부		0 = 아니오 1 = 예
		가계경제수준	1 = 하 2 = 중 3 = 상
	학교유형		1 = 중학교 2 = 고등학교
		학업성적	1 = 하 2 = 중 3 = 상
	건강요인	주관적 건강인지	1 = 하 2 = 중 3 = 상
		주관적 행복	1 = 하 2 = 중 3 = 상
		스트레스수준	1 = 하 2 = 중 3 = 상
		우울여부	0 = 아니오 1 = 예
	인터넷 중독요인	인터넷 중독여부	0 = 아니오 1 = 예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일련의 과정을 경유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며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요인, 인터넷 중독요인 등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흡연여부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측정하였다. 둘째, 각 독립변수에 따른 인터넷 중독 여부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χ^2 test)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SPSS WIN 17.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년, 학업성적 등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 등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38,391명(52.42%), 여학생이 34,847명(47.58%)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경우가 60,238명(83.36%)으로 훨씬 더 많았다. 가계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중이 34,253명(46.77%), 상이 21,072명(28.77%), 하가 17,913명(24.46%) 순으로 많았다. 학교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37,570명(51.30%), 고등학생이 35,668명(48.70%)으로 중학생이 더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하가 27,636명(37.73%), 상이 25,951명(35.43%), 중이 19,651명(26.83%) 순으로 많았다.

둘째, 건강요인에서는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우울여부 등을 살펴보았는데, 주관적 건강인지에 있어서는 상이 46,471명(63.45%), 중이 20,768명(28.36%), 하가 5,999명(8.19%) 순으로,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는 상이 39,725명(54.24%), 중이 23,601명(32.23%), 하가 9,912명(13.53%)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에서도 상이 32,094명(43.82%), 중이 29,669명(40.51%), 하가 11,475명(15.67%)순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우울여부에 있어서는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5,865명(62.62%), 우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7,372명(37.38%)으로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인터넷 중독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5,753명(7.86%)이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흡연 여부

표 3은 본 조사 대상자의 흡연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8,937명(12.20%)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변인	변수	범주	빈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성별	여	34,847 (47.58)
		남	38,391 (52.42)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니오	12,027 (16.64)
		예	60,238 (83.36)
		하	17,913 (24.46)
가계경제수준	중	34,253 (46.77)	
	상	21,072 (28.77)	
학교유형	중학교	37,570 (51.30)	
	고등학교	35,668 (48.70)	
학업성적	하	27,636 (37.73)	
	중	19,651 (26.83)	
	상	25,951 (35.43)	
주관적 건강인지	하	5,999 (8.19)	
	중	20,768 (28.36)	
	상	46,471 (63.45)	
주관적 행복	하	9,912 (13.53)	
	중	23,601 (32.23)	
	상	39,725 (54.24)	
스트레스수준	중	29,669 (40.51)	
	상	32,094 (43.82)	
	아니오	45,865 (62.62)	
우울여부	예	27,372 (37.38)	
	아니오	67,485 (92.14)	
인터넷중독 요인	인터넷중독여부	아니오	5,753(7.86)

표 3. 흡연 여부
Table 3. Smoking

변수	범주	빈도(%)
흡연여부	아니오	64,301(87.80)
	예	8,937(12.20)

3.3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표 4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요인, 인터넷 중독요인에 따른 흡연여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chi^2=1700.00$, $p<.001$),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chi^2=353.91$, $p<.001$),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chi^2=424.36$, $p<.001$), 고등학생이($\chi^2=1200.00$, $p<.001$), 성적이 낮은 경우에($\chi^2=206.19$, $p<.001$)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3.4 건강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둘째, 건강요인에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chi^2=53.80$, $p<.001$),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chi^2=420.95$, $p<.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chi^2=252.28$, $p<.001$),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chi^2=704.85$, $p<.001$)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
Table 4. Smoking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변인	변수	범주	흡연여부 빈도(%)		χ^2
			무	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	성별	여	32,392(92.95)	2,455(7.05)	1700.00***
		남	31,909(83.12)	6,482(16.88)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니오	9,960(82.81)	2,067(17.19)	353.91***
		예	53,574(88.94)	6,664(11.06)	
		가계경제 수준	하	14,944(83.43)	2,969(16.57)
		중	30,601(89.34)	3,652(10.66)	
	상	18,756(89.01)	2,316(10.99)		
건강요인	학교유형	중학교	34,542(91.94)	3,028(8.06)	1200.00***
		고등학교	29,759(83.43)	5,909(16.57)	
	학업성적	하	24,959(90.31)	2,677(9.69)	206.19***
		중	18,305(93.15)	1,346(6.85)	
		상	24,221(93.33)	1,730(6.67)	
	주관적 건강인지	하	5,091(84.86)	908(15.14)	53.80***
중		18,243(87.84)	2,525(12.16)		
상		40,967(88.16)	5,504(11.84)		
주관적 행복	하	8,185(82.58)	1,727(17.42)	420.95***	
	중	20,461(86.70)	3,140(13.30)		
	상	35,655(89.75)	4,070(10.25)		
스트레스 수준	하	10,308(89.83)	1,167(10.17)	252.28***	
	중	26,511(89.36)	3,158(10.64)		
	상	27,482(85.63)	4,612(14.37)		
우울여부	아니오	41,406(90.28)	4,459(9.72)	704.85***	
	예	22,895(83.64)	4,478(16.36)		
인터넷중독 요인	인터넷중독 여부	아니오	59,517(88.19)	7,968(11.81)	125.50***
		예	4,784(83.16)	969(16.84)	

*** $p<.001$

3.5 인터넷 중독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인터넷 중독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 증상이

있는 청소년이($\chi^2=125.50, p<.001$)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인터넷 중독 요인과 흡연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흡연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바라 하겠다.

우선 남학생에 있어서 흡연의 빈도가 더 많아 남학생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남성 흡연에 대한 상대적 관대함이나 영웅의식, 또래집단의 압력 등의 표현으로 남학생에 있어서의 흡연이 더 빈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는 남학생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의 형성과 이를 위한 자치활동의 마련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문화와 학습체험의 기회를 통해 흡연과 같은 일탈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익한 사회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흡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청소년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관심을 지니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부모와 동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모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지역사회, 또래집단이라는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흡연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예방교육이나 금연프로그램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라 하겠다. 또한, 성적이 저조한 학생도 흡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특기

와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이 흡연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스트레스정도가 높은,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이는 흡연이 신체적, 정신건강에 위해하다는 점, 그리고, 역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으로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강에 대한 흡연의 폐해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와 함께, 심신의 불편함이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검증노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인터넷 중독 요인에서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경우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 등은 청소년에게 흡연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라 하겠다. 특히 PC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흡연 등의 일탈행동의 개연성이 증가되리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올바른 인터넷 매체의 활용, 인터넷의 순 기능을 심분 활용하며,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흡연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과 흡연과의 관계를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카이 자승 검증 결과에 의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수준, 우울여부, 그리고 인터넷 중독요인에서는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라 흡연여부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과 대처방안 마

련을 위한 제언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참고 문헌

- [1] Park, T. Jung, M. Jung, S. Park, H. Han, C. Hong, S. You, S. & Moon, K.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3, pp. 505-515, 2013.
- [2] Yun, M. Jo, H. & Lee, H. "Effects of Internet Use and Alcohol Use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Vol. 25, No. 4, pp. 347-370, 2009.
- [3] Park, S. & Lee, H.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 Youth"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 291-299, 2013.
- [4] Sim, Y. Park, M. "An Analytic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Stress, Internal Resourc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6, No. 2, pp. 1-22, 2010.
- [5] Lee, E. Choi, T. & Seo, M.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2, pp. 69-84, 2000.
- [6] Jin, H. & Bae, S.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No. 2, pp. 193-221, 2012.
- [7] Nho, C. & Kim, S.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related Stress, Perceived School Gra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39, pp. 39-68. 2012.
- [8] Suh, K. Kim, E. & Cho, S. "The Role Physical Activity and Addiction to Internet Game in Stress Responses and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9, No. 5, pp. 115-135, 2012.
- [9] Kim, D. Kim, Y. Kim, S. Jang, Y. Jang, M. & Park, J.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4, pp. 937-944, 2012.
- [10] Shim, J. Seoung, J. Lee, M. Song, S. "A Study on Adolescents' Misconceptions about Oral Health Knowledge in Some Area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81-190, 2013.
- [13] Kim, S. "A Study on Leisure Activity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p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65-172, 2013.
- [12] Kweon, G. & Lee, H. "A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Metal Health and Their Use Internet",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13, pp. 59-86, 2002.
- [13] Han, S. Oh B. & Jang, I. "A Comparative Study 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between Average Internet Users and Excessive Internet User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4, No. 1, pp. 66-74, 2003.
- [14] Choi, N. & Kim, S. "Internet Game Addiction and Health Habits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8, No. 1, pp. 51-57, 2010.
- [15] We, J. & Chae, K. "Internet Addiction Disorder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3, No. 2, pp. 397-416, 2004.
- [16] Park, K. Kim, H. Lee, H. & Kim, O. "The Effects of family and personal variable of internet addicted young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4, No. 1, pp. 41-51, 2009.
- [17] Byeon, Y. & Lee, H.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460-468, 2007.
- [18] Lee, J. "Cyberspace Experience of Internet Came among Early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9, No. 3, pp.

221-229, 2011.

- [19] Lee, J. Kim, M. & Kim, J.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7, No. 1, pp. 229-242, 2012.
- [20] Jang, H. & Kim, B. "The Effect of Children's Internet Use Type on Internet Deviance : The Use of a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9, No. 4, pp. 199-225, 2008.
- [21] Kang, H. Son, J. "The Effects of Self-esteem Enhancement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5, No. 1, pp. 143-159, 2010.

저자 소개



이홍직(Hong-Jik Lee)

1993년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문학사)

1995년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s 졸업(Master of Science in Social Administration)

2003년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김광선(Kwang-Sun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김광회(Kwang-Hoi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남길우(Gil-Woo Na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청 언론담당

관실 신문팀장

※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민경원(Kyeong-Won Min)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삼순(Sam-Soon Lee)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정찬희(Chan-Hee Jeong)

1987년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95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박소연(So-Youn Park)

1996년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경제학과 졸업(학사)
1999년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졸업(Master of Science

in Social Work)

2010년 New York University Sliver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